

<12> 진단방사선과의 공휴일 및 야간 당직업무의 현황에 관한 조사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방사선과
강대현·박계연·신동철·최태규·김정웅

방사선사의 업무는 세분화되어 전문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또한 방사선과 당직시의 응급업무도 다양화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응급환자를 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시간 내에 최대한의 진단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촬영시간의 초과나 실수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 이것은 환자 서비스의 저하나 의료사고 발생과도 연결되는 수가 있다.

공휴일 및 야간당직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당직체계를 검토 개선하기 위해 1989년 1월~12월까지와, 1991년 1월~12월까지의 공휴일 및 야간 당직시의 업무량(촬영 인원수)을 월별, 부위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한다.

- 1) 당직근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89년 19,203명에서 91년 23,308명으로 21%의 증가를 보였다.
- 2) 각 부위별 검사현황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투시, 조영검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3) 요일별로는 일요일에 전체 환자의 19%를 기록하는 등 주말에 환자가 많았다.
- 4) 당직시간 중 15:30~23:30까지의 시간대에 전체 1,459명 중 51%인 885명을 차지하여 시간대별로 심한 차이를 나타냈다.

<13> 종합건강진단자 중 유방검사자의 현황 보고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진단방사선과
조정찬·김건중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방암의 발생빈도가 여성에게서 자궁경부암과 위암 다음인 세 번째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서양에서는 유방암이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에 유방암의 정기적 검사 및 조기발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울중앙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는 1991년 1월~1992년 12월말까지 검진자 10,452명 중 유방검사자 6,780명을 연령별, 질병별로 구분하여 본 결과, 20대 129명 중 19명, 30대 2,283명 중 513명, 40대 2,439명 중 722명, 50대 1,488명 중 511명, 60대 415명 중 190명, 70대 26명 중 19명 모두 1,974명의 양성석회화침착, 섬유낭포성 변화, 지방성 유방, 양성종양, 비대칭 농도, 혈관석회화, 악성석회화, 악성종양, 림프선비대 등 질병자로 평균 29.1%로 높은 질병자가 판정되었고, 양성 종양자는 616명 8.15%, 악성종양 26명 1.31%를 차지하였다. 서울중앙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1991년 2월부터 1992년 6월까지 screening mammography를 시행한 여성 5,096명 중 악성병소가 의심되었던 33명 중 15명이 조직검사를 하여 5명이 유방암으로 확진되었다. 1년 5개월간 1,000명당 발병빈도가 0.9명이고 연간 발생빈도 1.39명이었다. 서양의 screening study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고 서울중앙병